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II]

지 원 모 집 단 위	수험 번 호	성 명

※ 유의 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한다.
2. 1번 문항은 원고지 상단에 1로 기재된 답안지(파란색 답안지)에, 2번 문항은 상단에 2-1로 기재된 답안지(녹색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1번 답안 작성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르되, 분량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로 작성하여야 한다.(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2번 답안은 별도로 글자 수 제한이 없으나, 답안 작성 영역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경우 감점 처리한다.
4.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5. 수정 시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나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6.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7.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배점 비율은 4 : 6으로 한다.

※ 문제 1 :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401~500자)

[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초기의 모델을 우리는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모델의 대부분은 심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 통계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경제학적 관점의 장점(예를 들면, 인간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수리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의 용이성 등)을 잘 반영한다. 의사결정 초기 모델에 의하면,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며, 결정 대안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 가정되었다. 이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로, 한 의사결정자가 초봉이 같은 두 일자리 중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A회사에 입사하면 첫해에 20%의 급여 인상을 받을 기회가 50%인 반면, B회사에 입사하면 첫해에 10%의 급여 인상을 받을 기회가 90%라고 가정해 보자. 이 의사결정자는 각 대안에 대한 기댓값을 계산할 것인데, 이는 확률과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곱하는 것이다. 가능한 이득과 비용에 대해 이 의사결정자는 수리적 계산을 할 것인데 그 계산식은 $0.5 \times 0.2 = 0.1$, $0.9 \times 0.1 = 0.09$ 으로,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는 기댓값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 의사결정자는 A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 모델에 근거해 왔다.

대안 모델은 개개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요인들을 허용한다.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목표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쾌락(긍정적 효용이라고 불림)을 극대화하고 고통(부정적 효용이라고 불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은 주관적 효용(객관적 증거보다는 개인이 판단한 효용의 가중치에 근거함)과 주관적 확률(객관적인 통계적 계산보다는 개인이 판단한 가능성 정도에 근거함)을 의사결정 시 사용한다. 이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로 두 일자리 중 하나

를 선택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각 일자리가 제공하는 각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주관적인 긍정적 효용 또는 주관적인 부정적 효용을 부과할 것이다. 남편과 아이가 넷인 사람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독신보다는 건강보험, 치과 치료 혜택, 유급 휴가 등과 같은 이득에 더 높은 긍정적 효용을 부과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이 있는 직장 여성은 출장이 잦은 직업에 더 높은 부정적 효용을 부과할 것이다.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각 일자리가 제공하는 주관적인 긍정적 효용과 주관적 확률을 곱한 값에서 주관적인 부정적 효용과 주관적 확률을 곱한 값을 빼서 얻어진 상대적 기대가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가장 기댓값이 높은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다.

- 로버트 스텐버그, 『인지심리학』

[나]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나도 첫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두 번씩 오는 채소 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좀 팔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쭉들쭉한다. 그를 기다렸다가 뭐라도 팔아 주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아저씨는 손이 크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아저씨는 물건을 사면서 싸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웃는다. 내가 싸다는 건 댄 물가에 비해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채소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걸 손질하는 것도 일이다.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뒤란으로 난 텃마루에 퍼터버리고 앉아 흙 묻은 야채를 다듬거나 통이나 마늘을 까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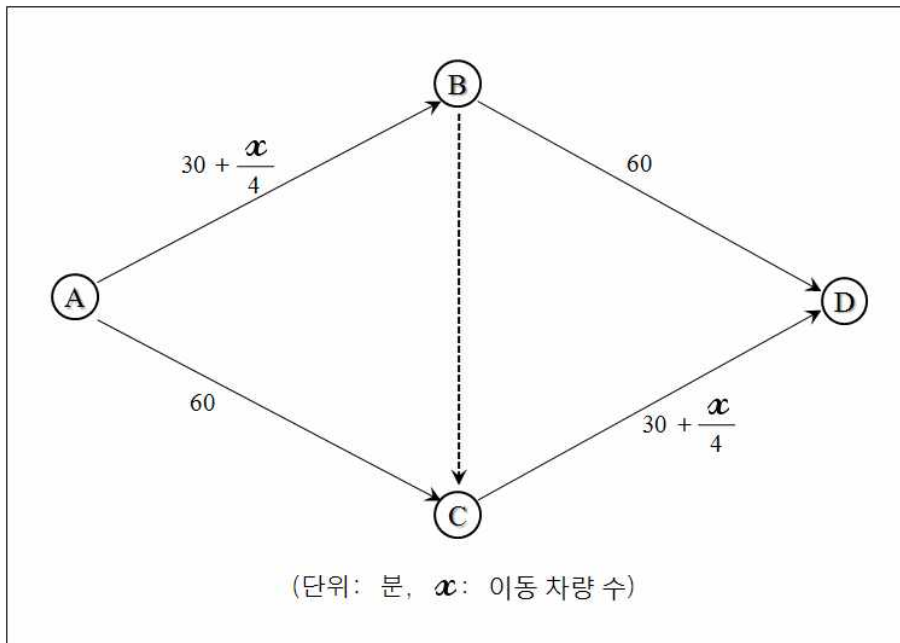
뿌리째 뽑혀 흙까지 싱싱한 야채를 보면 야채가 아니라 푸성귀라고 불러 주고 싶어진다. 손에 흙을 묻혀 가며 푸성귀를 손질하노라면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그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흙에서 낳아 자란 그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의 나와와 지속성까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고 으쓱한 느낌이다. 어찌다 슈퍼에서 깨끗이 손질되어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야채를 보면 공장의 자동 운반 장치를 타고 나온 공산품 같지, 푸성귀 같지는 않다.

다들 조금씩은 마당이 딸린 땅집 동네라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 경제적인 이점은 미미하지만 청정 야채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그것도 약간은 부럽지만 나에게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먹고사는 대로 먹고사는 게 제일 속 편하고 합당한 삶일 듯싶다. 무엇보다 내 단골 트럭 아저씨에는 불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 박완서, 「트럭 아저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다]

도시 A에서 다른 도시 D로 가는 두 경로가 있다고 하자. 즉, A에서 B까지 지방도를 통과해 B부터 D까지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ABD와 A에서 C까지 전용도로를 이용한 후 C부터 D까지 지방도를 지나는 경로 ACD가 있다. 각 구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다. 이때, A에서 D로 매일 차로 출근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두 경로에 대한 소요시간이 일치하게 된다.



※ 문제 2 : [다]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

(2-1) 위 제시문 [다]의 가정 하에서 총 120대의 차량이 A부터 D까지 이동하기 위한 소요시간을 계산하고 풀이과정을 제시하시오. (20점)

(2-2) 위 그림과 같이 B에서 C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A에서 B와 C를 거쳐 D로 가는 새로운 경로 ABCD가 생겼다고 하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세 경로 ABD, ACD, ABCD를 이용하는 소요시간이 모두 일치하여 더 이상 운전자들이 경로의 선택을 변경하지 않게 된다. 구간 B-C간 이동 소요시간이 10분이고, 총 120대의 차량이 A부터 D까지 이동한다고 할 때 A-D 간 이동 소요시간을 계산하고 풀이과정을 제시하시오. (20점)

(2-3) 위 (2-2)와 마찬가지로 120대의 차량이 세 경로를 이용하여 A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운전자들은 전용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도를 운전하면서 경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자. 이러한 운전자들이 많아질 경우, 경로 ABD 또는 ACD를 선택한 차량들의 A-D간 이동 소요시간의 증감 여부에 대해 예측하고, 그 근거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30점)

(2-4) 실제 상황에서는 차량에 따라 주행속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림에 표시된 이동 소요시간은 평균 소요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때 ㉠평균 소요시간을 얻기 위해 각 차량의 소요시간에 대한 산술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차량이 각각 80km/h와 120km/h의 속도로 동일한 구간을 이동했다고 하면, 두 차량의 평균 속도를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계산하고 ㉠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30점)